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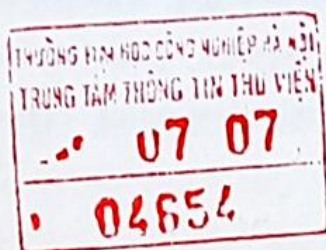


김홍석 지음

역락

우리말 생활백서

김 홍 석



역락

머,리,말

우리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일컬어, '버킷리스트(Bucket list)'라 한다. 이 말을 국립국어원에서 2014년 11월 '소망 목록'으로 다듬어 공표하였으나, 아직 언중들에게 생소한 말일 뿐이다. 여하튼 필자의 '소망 목록'에는 '1년에 한 권씩 출판하기'가 있다. 2004년부터 출간하기 시작하여 14년 된 작년까지 총 13권을 출판하고, 올해는 봄에 수필집 1권, 가을에 교양서 1권 해서 총 두 권을 대중에 선보인다. 이른바 나의 소망 목록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누구는 그런다. "하시는 직업이 정말 한가하신 업종인가 봐요?" 이런 말 들으면 역장이 무너진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며 산다. 장학사라는 직업이 야근 많고, 골치 아픈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원인에게 욕 먹는 것은 다반사이고, 한시도 무사한 나날을 보낸 적이 드물다. 이 때문인지 심지어 최근에는 장학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내겐 글쓰기이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고, 10시까지 동산 등반이나 자전거타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전 10시부터 한두 시간은 글 쓰는 시간이다. 이 원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지키며 살고 있다.

글 쓸 때는 참으로 신명난다. 하고 싶은 말을 실컷해보니 말이다. 글의 위력은 무섭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무식한 몸은 그냥 막 일단 갈겨쓴다. 그리고 보고 또 보고 한다. 그러면서 때론 황홀경에 빠지기도 한다. 이게 글 쓰는 쾌락이며 일주일의 스트레스 치유책이다.

작년에 모 출판사에서 낸 『한글생활백서』가 순풍에 돛을 달고 솔솔 팔려 나가고 있다. 그 책을 쓸 때 한글에 대한 여담을 모두 쏟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곱씹어지는 생각들이 나타나고, 이를 모았다가 정리한 것이 이번 책이다. 이름을 같이 해서 『한글생활백서 2』라 할까 했으나, 이 또한 색깔이 다소 다른 듯해서 아예 이름을 『우리말 생활백서』라 하였다. 그리고 보니, '생활백서' 세자매 중 셋째를 탄생시켰다. 첫째는 『국어생활백서』(2007년, 역락), 둘째는 『한글생활백서』(2017년, 연필의 힘)이었으니 말이다.

딸 하나를 시집보내는 심정이다. 이 셋째딸이 아버지를 욱보이게 한다면 이는 모두 내 탓이다. 가슴 속에 애지중지 하면서 키워온 글 자식이 잘못 표현되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게 다 내 잘못이다. 『딸에게 들려주는 결혼이야기』를 쓰신 가경신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정도는 있지만 왕도는 없다. 정도란 본질을 향해 바르게 가는 길이라면, 왕도는 가장 쉽고도 좋은 길이겠지. 그러나 세상에 언제나 꽃길만 걷는 왕도는 없단다. 다만 어떤 순간에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걷는 네 발자국이 만들어내는 너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이제 던져 놓았으니, 네 발자국대로 가길 바랄 뿐이다. 꽃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또한 나와 글 자식의 업보일 뿐이다. 아무쪼록 그 길을 큰 탈 없이 터벅터벅 가주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 그리고 이 글이 예쁘게 책으로 나올 수 있게 김고 더해주시는 박윤정 편집과장님과 출판으로 흔쾌히 허락하신 이대현 사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2월

김홍석 씀

Contents

- | | |
|------------------------|----|
| 01 올해의 한자성이 | 11 |
| 02 대중가요 노랫말의 아름다운 고유어들 | 16 |
| 03 자동차 이름은 어떤 뜻을 지닐까 | 21 |
| 04 우리말에 수 읽는 법이 있다 | 30 |
| 05 연산군의 한글 탄압 | 33 |
| 06 반대 상황에서 쓰이는 같은 말 | 37 |
| 07 세계 국가명과 지명의 가치표기 | 40 |
| 08 우리말과 비슷한 만주어의 세계 | 44 |
| 09 말의 무서운 힘 | 48 |
| 10 범죄인들의 은어 | 51 |
| 11 '-가'와 '-는'의 차이 | 54 |
| 12 가장 오랜 한글 금석문 | 57 |
| 13 '한글'이란 명칭 | 60 |
| 14 헛갈리는 감탄사들 | 63 |
| 15 세상에 떠도는 각종 ○○ 효과들 | 66 |
| 16 기름의 또 다른 우리말 '곰' | 70 |
| 17 ○○족의 세상 | 72 |
| 18 '-이-' 잘못 쓰면 안 돼요 | 77 |
| 19 혼종어(混種語)가 난무하는 세상 | 79 |

20 '바람'을 이르는 우리말들	81
21 자모음 놀이, 팬그램과 리포그램	86
22 표준발음 중 몇 개	89
23 남북한 축구 용어	92
24 춘향전 다시 보기	95
25 두음전환(頭音轉換, 스푸너리즘) 현상	98
26 '눈[雪]'을 이르는 우리말들	100
27 심청전 다시 보기	103
28 사용 빈도수가 대등한 동의어들	106
29 속담 속의 동물들	110
30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 구결	115
31 벽자(僻字)의 면모들	118
32 외국인에게 한글로 대하라	126
33 아름다운 한글 상표들	130
34 이름 속에 내재된 인물의 성격	133
35 세종대왕에 대한 여담	136
36 비슷하지만 다른 말	140
37 신조어의 세계	145
38 한글체 디자인, 캘리그래피	149

39	7세까지는 한글을 깨치라	151
40	인체어의 부차적 의미	153
41	인체어의 관용구	160
42	통일을 대비한 북한어 일고찰	181
43	복수 표준어가 있다	189
44	한 번에 두 가지 뜻, 중의법	194
45	영어 약어에 혼란스러운 사람들	197
46	십마니의 언어 세계	200
47	의태어가 지닌 어떤 틀이 있다	204
48	단어 중간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	206
49	‘ㅌ’과 ‘ㅎ’	208
50	띄어쓰기가 왜 중요할까	211
51	이음절 이상 단어에 연결규칙이 있다?	214
52	암돼지가 아니고 암돼지라고	216
53	현행 외래어표기법의 문제와 대안	219
54	소경의 은어들	222
55	재고할 문화재 명칭들	225
56	‘-뱅이’와 ‘-발이’ 그리고 ‘-박이’와 ‘-배기’	228
57	식상한 표현은 가라	231

58	'멋있다'와 '맛있다'의 복수표준발음	234
59	유의어인가, 동의어인가	237
60	한 말 또 하면 좀...	241
61	첩어도 지닌 어떤 틀이 있다	244
62	아귀와 방귀	246
63	'-'의 발음에 대해	248
64	부정어와만 호응하는 단어가 있다	251
65	아! 어찌란 말인가 (서로 반대인 속담들)	253
66	언어마다 기본 어순이 있다	255
67	한글 기원의 영어 단어	258
68	한글의 단점	261
69	의성어와 의태어	264
70	두 가지 이상의 한자음	266

저자 소개

김홍식(金洪錫)

공주대에서 국어교육으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둘레둘레 상경해 2003년 단국대에서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교편을 잡아 24년간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다가, 2015년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로 전직하였다. 2012년 계간 『산림문학』, 2017년 『한국문학예술』 문예공모에서 수필 부문 신인상, 한글학회로부터 국어운동 공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01년부터 10여 년간 단국대, 공주대, 순천향대, 백석대, 경찰대에서 국어학 및 글쓰기 강사를 거쳤다.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연구이사과 한글학회 충남지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학교 현장에서 국어학 분야 특강도 하였다.

쓴 책으로는 『어말 선초의 서법 연구』(2004년, 한국문화사), 『눌은밥과 돼지고기 장조림』(2005년, 아이러브올리브), 『형태소와 차자표기』(2006년, 역락), 『국어사 연구와 자료』(2007년, 공저, 태학사), 『국어생활백서』(2007년, 역락), 『고정틀 박살내기』(2007년, 보성),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 연구』(2008년, 한국문화사), 『은어와 우리말의 세계』(2011년, 글누림), 『길을 묻는 그대들의 푸른 나침반, 충남외고』(2011년, 공저, 기획, 글누림), 『세계어 연구』(2012년, 공저, 기획, 다래헌) 『각시봉어를 찾아』(2014년, 맑은샘), 『한글생활백서』(2017년, 연필의 힘), 『노무족의 향기』(2018년, 부크크) 등이 있다.

우리말 생활백서

초판 인쇄 2018년 12월 10일

초판 발행 2018년 12월 15일

지은이 김홍식

펴낸이 이대현

편 집 박윤정

디자인 홍성권

펴낸곳 도서출판 역락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46길 6-6(문창빌딩 2F)

전화 02-3409-2058(영업부), 3409-2060(편집부)

팩시밀리 02-3409-2059

이메일 youkrack@hanmail.net

역락블로그 <http://blog.naver.com/youkrack3888>

등록 1999년 4월 19일 제303-2002-000014호

ISBN 979-11-6244-230-2 03810

* 정가는 표지에 있습니다.

* 파본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 자료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 CIP2018040328)



작년에 모 출판사에서 '한글생활백서'를 출판했다. 그 책을 쓸 때 한글에 대한 여담을 모두 쏟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곱씹어지는 생각들이 나타나고, 이를 모았다가 정리한 것이 이번 책이다. 이름을 같이 해서 '한글생활백서 2'라 할까 했으나, 이 또한 색깔이 다소 다른 듯해서 아예 이름을 '우리말 생활백서'라 하였다. 그러고 보니, '생활백서' 세자매 중 막내를 탄생시켰다. 첫째는 '국어생활백서'(2007년, 역락), 둘째는 '한글생활백서'(2017년, 연필의 힘)이었으니 말이다.

딸 하나를 시집보내는 심정이다. 이 딸이 아버지를 욕보이게 한다면 이는 모두 내 탓이다. 가슴 속에 애지중지 하면서 키워온 글 자식이 잘못 표현되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게 다 내 잘못이다. 이제 던져 놓았으니, 네 발자국대로 가길 바랄 뿐이다. 꽃길아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또한 나와 글 자식의 업보 일 뿐이다. 아무쪼록 그 길을 큰 말 없이 터벅터벅 가주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TH



Mã sách: 070704654



ISBN 979-11-6244-230-2 03810

정가 15,000원